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I):

부모 역할관에 대하여*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를 중심으로—

Die Studie von Rollenauffassungen bei koreanischen Eltern während
des Übergangs zur Elternschaft(I)

한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양 명 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Nam Univ.

Assistant Prof.: Yang, Myong Suk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요약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Ausgangspunkt der Untersuchung ist der weltweite soziale Wandel der letzten Jahrzehnte und sein Einfluss auf die Entstehung und Charakteristiken junger Familien. Ein Ausdruck dieses generellen Wandels ist der Meinungswandel im Zusammenhang mit elterlichen Funktionen. Untersucht wurde, ob Rollenvorstellungen und die Beziehung der Eltern zueinander in einer bestimmten Phase des Familienlebens, nämlich während des Übergangs zur Elternschaft, unterworfen sind. Beurteilt wurden Übergangseffekte im Vergleich von Veränderungen bei Erst- und Zweiteltern, die im Zusammenhang mit dem Baby aufgetreten sind.

Dieses Vorgehen basierte auf der Annahme, daß bei Ersteltern stärkere Effekte auftreten als bei Zweiteltern.

Die Ergebnisse basieren auf 130 südkoreanischen Erst- bzw. Zweiteltern die während der Schwangerschaft(ca. 6 Monat) erstmals befragt wurden und auf verbliebenen 89 Elternpaaren, die sich an einer zweiten Befragung drei Monate nach der Geburt des Babys beteiligten. Die Ergebnisse der Untersuchungen haben gezeigt, daß die koreanischen Erstväter noch stärker als die Zweitväter eine egalitäre

* 본 논문은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임.

Elternrolle vor und nach der Geburt des Kindes befürworten. Beim Übergang zur Elternschaft kam es also nicht zu einer Änderung in der traditionellen bzw. egalitären Rolleneinstellung bei koreanischen Erst- und Zweiteltern. Damit sind sowohl Ergebnisse zur Generativität während bei Müttern kein Unterschied erkennbar ist, zeigen sich die Erstväter weniger konservativ als die Zweitväter. Zusammenhang zwischen ehelicher Zufriedenheit und Partnerdifferenzen in Rolleneinstellungen wurde gefunden: Paare, bei denen die Mütter stärker egalitär orientiert ist als die vater, besitzen niedrigere Werte in ehelicher Zufriedenheit.

I. 서 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사회변동에 따른 젊은 세대 가족의 특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젊은 세대의 가족 특성 중에서도 특히 부모 역할관의 변화, 즉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최근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모의 역할 변동을 부모전환기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신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모전환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부모의 역할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첫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부부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보다 전환기에 따른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집과정에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표집수는 통계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되었다. 또한 출산력의 차이가 부모의 역할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나이를 기준으로 같은 연령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보다 출산력이 높다고 추정하고 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부부간의 역할관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전환기에 대한 개념 및 연구

개체발생학적측면에서 보면 부모 전환기에 대한 개념은 전 일생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환기에 대한 개념은 인류학적 측면에서는 이미 산업화 이전의 씨족사회에서 나이에 대한 변화 개념으로 성년 의식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하여 찾아 볼 수 있다(Benedict, 1938/1978; v. Gennep, 1960). 이 전환기 개념은 오랜 유래를 가지고 그 문화속에서의 사회화 과정의 연속성 내지는 비연속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가족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위기"에 의한 발전의 관점에서(Hill, 1949; LeMaster, 1957), 심리학에서는 Rossi(1968)가 처음으로 "중립적" 관점에서 다루었고, Schneewind(1983)는 이 "중립적" 관점을 생태학적 체계이론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였으며, Golger-Tippelt(1985, 1988)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전환기를 발달 과정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부모전환기에 대한 가족심리학적 관심은 특히 이 전환기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질적 내지는 양적으로 장애의 요인이 되는지, 아니면 축진의 요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즉 부부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가 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 위기가 되는지 또는 발전의 계기가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부부에게 있어서 첫 출산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2인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관계로 변화되면서 부부의 상호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된다(Höflinger, 1987; Olblich, 1982; Rossi, 1968). 이러한 부모 전환기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자녀 출산을 전후한 시기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과(Golger-Tippelt, 1988; Petzold, Kentges & Erdmann, 1990), 특히 첫 임신과 출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기의 변화에 대하여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artoszyk, 1985; Bartoszyk & Nickel, 1986a, 1986b; Michaels & Goldberg, 1988; Nickel, 1987(a), 1987(b), 1988(a), 1988(b); Nickel, Bartoszyk & Wenzel, 1987; Wenzel, 1987; Grant, Nickel, Vetter & Yang, 1993, Yang, 1990).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Bartoszyk (1985)은 예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교실에 참여한 아버지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아버지 집단이, 자녀의 출생 후에 변화된 가족 체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고, Wenzel(1987)은 아버지와 유아의 상호관계를 예비 부모교육을 받은 아버지 집단과 아닌 아버지 집단을 비디오 분석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Yang(1990)은 부모전환기를 통하여 변화하는 가족체계를 크게 가족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첫 임신을 한 부부와 둘째 자녀를 임신한 한국의 부부를 중심으로, 이들의 부모 역할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결혼만족도, 그리고 출산력 등을 비롯한 가족환경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Grant, Nickel, Vetter & Yang(1993)은 한국과 독일 부모의 역할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결혼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전환기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을 다룬 고선주, 옥선화(1993)와 첫자녀의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를 다룬 박숙자(1991)과 부모전환기의 부부관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이숙현(1990)과 부모전환기에서 첫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양명숙(1991)이 있다.

자녀의 출산으로 부부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을 가지게 되며, 아버지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가사일과 육아 등을 맡게되는 전통적인 역할구분이 기능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로 구분되어

(Parsons & Bales, 1955) 한국의 가족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구분은 현대의 젊은 세대의 부부관계에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률과 더불어 가사노동의 기계화 및 자동화는 주부들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의 육아와 교육의 기능도 유치원과 각종교육기관 및 학교교육을 통하여 전담되어감에 따라 과거 가정에만 국한되었던 주부들의 활동역할이 점차 사회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취업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분담의 변화와 더불어 역할관에는 크게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역할관과 남녀평등의 개념을 바탕으로하는 평등주의적 역할관이 있다(Brogan & Kutner, 1976).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역할관을 진보적인 평등주의적 가치관과 보수적인 전통주의적 부모역할관으로 나누었다.

한국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들은 산업화 및 현대화와 더불어 급속히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에 의한 전통적인 역할개념이 현대의 가정생활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류시중, 1973; 류시중, 박경구, 1982; 옥선화, 1980, 1982; 이미숙, 1980; 이석진, 1971; 이정연, 1982, 1983; 이효재, 1959; 임정빈, 정혜정, 1986; 최신덕, 1973; 최재석, 1971).

이러한 한국 부부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전통적인 역할 개념에서 평등주의적 현대 가족의 역할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역할 갈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가족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연구로 특히 임신과 출산을 통한 부모전환기에서의 부부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고선주, 옥선화, 1993; 박숙자, 1991; 이숙현, 1990, 양명숙, 1991)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관을 중심으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전환기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표집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의 20세 이상에서 38세 미만의 첫 자녀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임신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방법은 단기 종단적 연구로 1차 조사는 임신중인 부부(약 임신 5, 6개월을 중심으로)를 대상으로 1988년 11월에서 1989년 1월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군 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찾은 임신부를 면접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각쌍의 부부를 조사하였고, 2차 조사는 자녀가 출생한지 3개월이 지난 후 1차 조사에 응답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우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포한 후에 우편내지는 인편으로 수거하였다. 1차 조사에 분석된 자료는 총 130쌍으로, 질문에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수(4쌍)가 통계학적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여 제외되었다. 2차 조사는 이들 중에 89쌍만이 통계 분석이 가능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자료의 분석방법

측정도구로는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하이네 대학교 발달 및 교육심리학 연구소에서 국제 비교연구를 위하여 독일과 한국을 중심으로 연구자와 공동 제작한 질문지중에 부모역할관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역할관에 대한 질문지는 부모의 역할을 전통적 대 평등적인(traditional v. equal) 관점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문항은 clusteranalysis를 통해 26개 문항중에 독일과 한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보수적 역할관은 15개, 진보적인 경향인 평등주의적 역할관으로는 5문항만이 채택되었다.

먼저 전통적인 부모역할관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아래의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련 번호는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교 발달 및 가족심리학 연구소에서 연구자와 공동 제작한 설문지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고 있다. 1. 나는 아기가 아버지보다 어머니

곁에 있기를 더 원한다고 본다, 2.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등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 보다 더 재미를 느낀다, 5. 내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아직 어린 동안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 22. 나는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라고보다는 어머니의 일이라고 여긴다, 28. 아이가 아직 영·유아기일 때 남편은 부인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어 주는 것 외에는 아버지로서 별 다른 일을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37.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모범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40. 나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면 아이의 성장이 나쁘다고 본다, 42.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만큼 아기를 그렇게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7. 생후 일년만에 아기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어머니곁에 있을 필요가 있다, 60.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아이에게 존경과 순종과 같은 가치들을 훨씬 더 잘 교육시킬 수 있다고 본다, 62. 내 생각으로 아기돌보기는 단지 여자들의 일이다, 71. 나는 아이들을 걱정하고 돌보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특성이라고 여긴다, 78. 나는 남자들은 결코 아기의 육구에 대한 감각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79. 아이들이 아직 어릴때에 여자는 집에서 하는 일 외에 바깥 일을 해서는 안된다, 82. 나는 아버지들은 아기를 돌보는 일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또한 너무나 서툴다고 본다.

평등적 역할관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아래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아버지가 집에 돌아 오면, 부인의 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이 돌보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 46. 아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똑같이 자상한 사랑과 따뜻함을 필요로 한다, 58. 가사일이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같이 나누어서 해야한다, 65. 나는 아버지들도 생후 첫 몇 개월 동안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기와 함께 많은 것을 시작 할 수 있다고 본다, 68.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서 똑같이 중요하다.

부모역할관에 대한 Cronbach Alpha는 제 1차 조사(N=130)때에 전통적 역할관에서 어머니=0.775, 아버지=0.719, 평등적 역할관에서 어머니=0.509, 아버

지=0.565로 나타났으며, 제 2차 조사때(N=89)는 전통적 역할관에서 어머니=0.685, 아버지=0.671, 평등적 역할관에서 어머니=0.531, 아버지=0.504로 나타났다. 이 부모역할관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는 평등적 역할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 1, 2차 조사를 통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에 의한 두 시기간의 상관계수는 어머니=0.546과 아버지=0.556로 나타나기에 불만족스러워나 이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대답은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되어 있다. “정말 그렇다”에 4점, “그런 편이다”에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자료 처리는 SPSS/PC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빈도, 평균치, 중간치, Mann-Whitney-U-Test 등이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는 총 130쌍이었으며, 이중에 76(58.5%)쌍은 첫 자녀를 임신한 부부였으며, 54(41.5%)쌍은 둘째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부부였다. 이중에 2차 조사에 응한 대상자는 89쌍이었으며 47쌍(52.8%)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부부였으며, 42쌍(47.2%)은 둘째 자녀를 출산한 부부였다. 이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1차 조사대상자 130쌍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평균 나이는 조사당시 27.4세였으며(최소=21.0세, 최고=35.0세), 아버지의 나이는 평균 30.1세(최소=25.0세, 최고=43.0세)로 자세한 나이 분포는 <표 1>에서 볼 수 있다.

<표 2>에서는 제 1차 조사당시의 임신개월을 나타내고 있다. 130명중 13명의 임신부에서는 임신개월이 누락되어 117명만이 분석되었으며, 이들 중 평균 임신개월은 5.4 개월이었으며, 75%이상이 5, 6, 7개월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부모들의 종교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1> 조사당시의 나이 분포도 (N=130)

	어머니 %	아버지 %
나이 21	.8	
22	1.5	
23	3.8	
24	6.9	
25	13.8	1.5
26	11.5	5.4
27	13.8	7.7
28	16.2	12.3
29	10.8	20.0
30	6.2	14.6
31	9.2	13.1
32	3.1	7.7
33	.8	6.9
34	.8	4.6
35	.8	2.3
36		1.5
37		1.5
43		.8
계	100.0	100.0

<표 2> 조사 당시의 임신 개월 (N=130)

개 월	%
2	1.7
3	8.5
4	9.4
5	36.8
6	21.4
7	14.5
8	6.8
9	.9
계	100.0

교육수준은 <표 4>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아버지들의 교육수준이 어머니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이 어머니 집단에서는 43.9%, 아버지 집단에서는 67.7%로 나타났다. <표 5>의 직업별 분포표를 보면, 130명의 어머니들 중에 25.4%가 직업을 가졌

〈표 3〉 종교 분포

(N=130)

	어머니 %	아버지 %
종교없음	37.7	48.5
기독교	25.4	20.0
천주교	11.5	7.7
불교	23.1	21.5
기타종교	1.5	0.8
무응답	0.8	1.5
계	100.0	100.0

〈표 4〉 교육수준 분포도

(N=130)

	어머니 %	아버지 %
무학	0.0	0.0
국졸	0.8	0.0
중졸	4.6	0.8
고졸	36.8	21.5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13.8	10.0
대졸	40.8	51.5
대학원졸 이상	3.1	16.2
계	100.0	100.0

고, 74.6%는 직업이 없었다. 아버지들 중에서는 96.8%는 직업이 있었으며, 2.3%는 직업이 없었다.

〈표 5〉 직업별 분포도

(N=130)

직업분류	어머니 %	아버지 %
전문관리직	1.5	10.0
전문직	10.8	18.5
사무직	8.5	42.3
판매직	2.3	16.2
생산직	0.0	3.8
무응답	76.8	9.2
계	100.0	100.0

월평균 소득은 어머니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1,409,244원($s=64,102$, Median=60,000원)이며, 아

〈표 6〉 지역 분포도(어머니 응답 기준)

(N=130)

지역	%
파주	0.8
진해	3.8
경주	2.3
인천	10.8
경기도 지역	6.9
울주	0.8
마산	0.8
부산	8.5
서울	56.9
창원	4.6
울산	2.3
수원	0.8
무응답	0.8
계	100.0

버지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수입은 1,367,177원($s=62,798$, Median=675,000)으로, 월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부 응답자들의 월소득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경기도 지역은 화성군, 성남시, 시영, 광명시, 부천, 과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부모 역할관에 대하여

1)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부모 역할관 비교

먼저 부모역할관의 분포도를 각 척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부모역할관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리커트 4점 척도중에 임신기인 1차 조사와 자녀의 출산후 3개월이 지난 2차 조사결과 어머니집단의 평균은 1차조사에는 2.72, 2차 조사에는 2.73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집단에서는 1차조사 결과 2.87, 2차 조사결과 2.85로 나타났다. 평등적 부모역할관은 1차 조사에는 어머니집단의 평균은 3.41, 2차 조사에는 3.69로 나타났고, 아버지집단의 평균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3.22로 나타났다. 이에 첫째 자녀를

〈표 7〉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부모 역할관

N=표집 수, M=평균, s=표준 편차

변 인		첫째 부모			둘째 부모		
		N	M	s	N	M	s
제1차 시기(임신기)							
전통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76	2.69	0.37	54	2.74	0.37
	아버지	76	2.81	0.39	54	2.92	0.31
평등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76	3.43	0.34	54	3.38	0.30
	아버지	76	3.28	0.32	54	3.15	0.37
제 2차 시기(출생 후 3개월)							
전통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47	2.70	0.42	42	2.76	0.35
	아버지	47	2.86	0.42	42	2.84	0.30
평등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47	3.45	0.32	42	3.32	0.33
	아버지	47	3.30	0.35	42	3.13	0.32
제 1차 시기와 제 2차시기의 차이							
전통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47	-0.03	0.35	42	-0.06	0.25
	아버지	47	-0.04	0.32	42	0.05	0.29
평등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47	0.00	0.36	42	0.08	0.30
	아버지	47	-0.06	0.37	42	0.01	0.35

출산하는 부모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의 역할관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7〉에서와 같다.

따라서 부모역할관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집단과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8〉의 Mann-Whitney-U-Test 결과를 보면, 임신기인 제 1차 조사 결과와 자녀의 출산후 3개월이 지난 2차 조사의 결과 전통적 부모역할관에서는 어머니집단들과 아버지집단들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조사 결과와 2차조사 결과의 차이도 전통적 부모역할관에서는 각 부모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통적 부모역할관에서는 전환기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적 부모역할관에서는 1차 조사결과 어머니집단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집단간에서는 $p < 0.10$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아버지 집단에서는 첫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집단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집단 보다 더 평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

0.077). 2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집단들간에서도 $p < 0.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출산후 3개월이 지난 시기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집단들이 더 평등적 부모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 0.099$).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집단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집단에서 더 평등적 부모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61$). 그러나 1차 조사와 2차 조사결과와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또한 평등적 부모역할관에서도 전환기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 부모역할관에 있어서 임신기와 자녀의 출산후 3개월이 경과한 시기를 통하여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집단들과 아버지집단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전환기로 인한 전통적 부모역할관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등적 역할관에서는 임신기와 출산후에도 첫째 자녀를 가진 아

〈표 8〉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부모 역할 가치관에 대한 Mann-Whitney-U-Tests

N = 표본 수, EE =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ZE =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변 인		N		Mean Rang		z(U)	p
		EE	ZE	EE	ZE		
제 1차 시기(임신기)							
전통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76	54	63.3	68.5	0.776	0.438
	아버지	76	54	62.3	70.0	1.157	0.247
평등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76	54	68.0	62.0	0.889	0.374
	아버지	76	54	70.4	58.6	1.770	0.077
제 2차 시기(출생 후 3개월)							
전통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47	42	43.2	47.1	0.708	0.479
	아버지	47	42	44.9	45.2	0.054	0.957
평등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47	42	49.2	40.3	1.651	0.099
	아버지	47	42	49.8	39.6	1.873	0.061
제 1차 시기와 제2차 시기의 차이							
전통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47	42	46.5	43.3	0.580	0.562
	아버지	47	42	41.0	49.5	1.558	0.119
평등적 부모역할관	어머니	47	42	42.6	47.7	0.919	0.358
	아버지	47	42	41.6	48.8	1.325	0.185

버지 집단에서 둘째 자녀를 가진 아버지집단보다 더 평등적 역할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집단에서는 자녀의 임신기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녀의 출산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집단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집단보다 더 평등적 부모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등적 부모역할관에서도 부모전환기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통적, 평등적 부모역할관에 있어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집단과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집단들간에 부모전환기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기에 부모역할관은 부모전환기에도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어머니 나이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와 부모역할관

출산력의 차이가 부모역할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첫째 부모의 부모역할관과 둘째 부모의 부모역할관을

비교 하였다. 이는 같은 나이의 임신이 가능한 여성일 경우 첫째 자녀를 가진 부부보다 둘째 자녀를 가진 부부의 출산력이 높다는 추정 아래 같은 나이의 첫째 부모와 둘째 부모의 역할관을 비교 분석 하였다. 이에 자녀의 출산후인 2차 조사 결과는 각 연령별 표집수가 통계상으로 분석하기가 미흡하여, 임신기인 1차 조사 결과중에 통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25세에서 31세까지의 연령집단만을 분석하였다.

〈표 9〉와 〈표 10〉의 전통적 부모역할관을 보면, 어머니집단간의 차이는 1차 조사결과 25세 집단에서 $p < 0.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25세의 어머니집단에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집단보다 더 전통적인 부모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나이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집단에서는 〈표 10〉에서와 같이 p 값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집단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집단에서 보다 더 전통적인 부모역할관을 가지는 경향이 모든 나이 집단(25세-31세)에서

〈표 9〉 어머니의 나이에 따른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 가치관에 대한 Mann-Whitney-U-Tests

N=표본 수. EM=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 ZM=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

제 1차 시기(임신기)						
어머니의 나이	N		Mean Rang		z(U)	p
	EM	ZM	EM	ZM		
25	13	5	11.0	5.7	1.830	0.067
26	11	4	7.3	10.0	0.985	0.324
27	10	8	8.8	10.4	0.581	0.561
28	12	9	10.0	12.3	0.821	0.412
29	3	11	7.8	7.4	0.078	0.938
30	5	3	4.8	4.0	0.302	0.763
31	6	6	6.1	6.9	0.321	0.748

〈표 10〉 어머니의 나이에 따른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의 전통적 역할 가치관에 대한 Mann-Whitney-U-Tests

N=표본 수. EV=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 ZV=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

제 1차 시기(임신기)						
어머니의 나이	N		Mean Rang		z(U)	p
	EV	ZV	EV	ZV		
25	13	5	9.2	10.2	0.296	0.767
26	11	4	7.6	9.1	0.527	0.598
27	10	8	8.6	10.6	0.718	0.473
28	12	9	10.0	12.4	0.854	0.393
29	3	11	5.7	8.0	0.789	0.430
30	5	3	4.2	5.0	0.307	0.759
31	6	6	6.3	6.7	0.080	0.936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Mean sign Test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전체 7개 집단에서 7개 모든 집단의 방향이 정적일 때 $p=0.0156$ 이므로, $p < 0.05$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 부인의 연령이 같은 각 연령 집단(25세-31세)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 집단들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 집단들 보다 더 전통적인 부모역할관을 가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0〉과 〈표 11〉에서 보면 평등적 부모역할관에서는 어머니 집단들과 아버지 집단들간의 차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나이를 기준으로 출산력의 차이

가 부모역할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통적 부모역할관은 25세의 집단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 집단이 더 전통적인 부모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어머니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나이 집단간의 방향도 일관성이 없었기에 출산력에 따른 전통적 부모역할관의 차이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아버지 집단에서는 7개의 연령 집단(25세-31세)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 집단에서 더 전통적인 부모역할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등적 역할관에서는 어머니 집단들과 아버지 집단들간에 출산력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어머니의 나이에 따른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평등적 역할 가치관에 대한 Mann-Whitney-U-Tests

N=표본 수. EM=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 ZM=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

제 1차 시기(임신기)						
어머니의 나이	N		Mean Rang		z(U)	P
	EM	ZM	EM	ZM		
25	13	5	10.7	6.4	1.513	0.130
26	11	4	8.2	7.5	0.204	0.838
27	10	8	9.2	9.9	0.227	0.821
28	12	9	11.9	9.8	0.729	0.466
29	3	11	9.2	7.0	0.780	0.435
30	5	3	4.6	4.3	0.000	1.000
31	6	6	6.4	6.6	0.000	1.000

〈표 12〉 어머니의 나이에 따른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의 평등적 역할 가치관에 대한 Mann-Whitney-U-Tests

N=표본 수. EV=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 ZV=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

제 1차 시기(임신기)						
어머니의 나이	N		Mean Rang		z(U)	P
	EV	ZV	EV	ZV		
25	13	5	9.1	10.5	0.456	0.648
26	11	4	8.0	7.9	0.000	1.000
27	10	8	8.9	10.2	0.454	0.650
28	12	9	11.3	10.6	0.257	0.797
29	3	11	10.3	6.7	1.260	0.208
30	5	3	5.6	2.7	1.599	0.110
31	6	6	7.1	5.9	0.489	0.625

3) 부부간의 역할관의 차이와 결혼만족도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양명숙, 1991)에 이어 부부 역할관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만족도에 대한 측정 도구로는 이인수(1986)의 결혼만족도 4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0점, “대체로 그렇다”에는 1점, “반반이다”에는 2점, “대체로 그렇다”에는 3점, “정말 그렇다”에는 4점을 주었다. 신뢰도는 제 1차 조사에서 어머니에게서는 Cronbach Alpha=.945(N=134), 아버지에게서는 Alpha=.938(N=134)로 나왔으며, 2차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Cronbach Alpha=.949(N=92), 아버지의 Cronbach Alpha=.958(N=92)로 대체로 높게 나

타났다. 이에 부부간의 역할관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면 〈표 13〉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전통적 부모역할관에서 긍정적 방향의 차이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전통적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가 정적일 때는 부모중에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남녀의 역할을 더 강하게 규정짓는 전통적 부모역할관을 가질 경우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더 전통적인 부모역할관을 가질 때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차 조사 결과의 아버지 집단에서만 $P < 0.10$ 의 수준에서 $r=0.19$ 로 나타났으나 거의 무시할 상관관계를

〈표 13〉 부부간의 역할관의 차이와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p=유의도, ()=표본수, T1=제 1차 시기, T2=제 2차 시기

	결혼만족도				
		제 1차시기(임신기)(T1)		제 2차 시기(출산후)(T2)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전통적 역할관 (어머니-아버지)	T1	-0.0597 (130) p=0.500	-0.0008 (130) p=0.993	-0.0712 (89) p=0.507	-0.0250 (89) p=0.816
	T2	-0.0160 (89) p=0.881	0.0300 (89) p=0.780	0.0786 (89) p=0.464	0.1927 (89) p=0.070
평등적 역할관 (어머니-아버지)	T1	-0.1006 (130) p=0.255	-0.3633 (130) p=0.000	-0.2237 (89) p=0.035	-0.2317 (89) p=0.029
	T2	-0.1435 (89) p=0.180	-0.2730 (89) p=0.010	-0.2191 (89) p=0.039	-0.3097 (89) p=0.003

나타내고 이기에, 전통적 부모역할관에 있어서 부모간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등적 부모역할관에서는 1차 시기의 어머니집단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평등적 역할관의 경향을 가진 부모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모역할관에서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통적 부모역할관에 대한 부부의 차이보다는 평등적 부모역할관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평등적 부모역할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결혼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관련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년간의 사회변동에 따른 젊은 세대 가족의 특성중에 부모가 됨으로서 가지는

부모역할관의 변화를 임신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모전환기를 중심으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전통적 대 평등적 역할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출산력의 차이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부부간의 부모역할관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아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은 임신을 중심으로 한 1차 조사에는 130쌍으로 이중에 58.5%(76쌍)는 첫 자녀를 임신한 부부였으며, 둘째 자녀를 임신한 부부는 41.5%(54쌍)였다. 자녀의 출생후 3개월 후인 2차 조사에는 89쌍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중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52.8%(47쌍)이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는 47.2%(42쌍)이었다.

이에 이들의 부모역할관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전통적 부모역할관에서는 임신기에서와 출산후 3개월이 지난 시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등적 부모역할관에서는 임신기와 출산후에도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집단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집단보다 더 평등적 부모역할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집단에서는

자녀의 출산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 집단이 더 평등적 부모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적 부모역할관보다는 평등적 부모역할관은 대체로 첫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에게서 더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보다 학력이 더 높고, 연령에 있어서도 더 젊은 층이라는 Yang (1990)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러한 특성이 진보적인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통한 전환기의 영향은 전통적, 평등적 부모역할관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주변 현상보다 가치관의 변화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는 Fishbein과 Ajzen(1975)의 모델에서와 같이 임신기와 출산후 3개월간의 비교적 짧은 부모전환기 동안에서의 부모역할관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가치관에서는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출산력에 따른 역할관의 차이에서는 출산력이 높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집단이 전통적 부모역할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들의 전통적인 부모역할관은 출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역할관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통적 부모역할관보다는 평등적 부모역할관의 부부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평등적 부모역할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결혼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높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통한 부모전환기 동안에 전통적 대 평등적 부모역할관에서 안정성을 나타내고, 평등적 부모역할관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들에게서 보다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아버지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출산력에 따른 부모역할관에서는 아버지들의 전통적 부모역할관은 출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의 부모역할관의 차이와 결혼만족도에서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평등적 역할관을 가질 때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부모전환기의 영향을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집단과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집단을 비교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표집과정에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부부의 표집이 어려워 제외된 점과 부모역할관의 척도가 국제간의 비교를 위하여 제작되는 과정에서 특히 평등적 부모역할관의 문항이 5개로 제한된 점이 한계점이었으며, 표본 추출의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한국의 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모수적 표집이 되지 못하였기에, 통계처리하는 비모수적 검증방법만을 사용하였기에 검증력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제안한다면, 부모전환기의 시기를 임신기에서 자녀의 출생 후 1년 이상의 시기로 확대하여 장기 추적 연구해 보는 것과 비교 대상에 있어서도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집단이 포함된다면 출산력에 따른 차이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가족발달적 접근에 의한 부모전환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고선주, 옥선화,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연구 I : 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2호, 1993, 55-67.
- 2) 류시중, 한국 도시 가족의 역할, 경북대학교, 인문과학 논문집, 17, 1973, 29-40.
- 3) 류시중, 박경구, 한국 도시 가족의 가사역할과 세력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양문화, 제 9편, 1982, 89-109.
- 4) 박숙자, 첫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사회사연구회편, 1991, 141-180.
- 5) 옥선화,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1)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자연가정과학편, 제11집, 1980, 77-91.
- 6) 옥선화,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2),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자연가정과학편, 제 13집, 1982, 5-34.
- 7) 이미숙,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성역할태도와의 관

- 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 서울, 1980.
- 8) 이석진, 핵가족에 있어서의 부부관계 및 역할구조 -도시부부를 중심으로-, 이대 석사, 서울, 1971.
 - 9) 이숙현, 부모로기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 논집, 2, 1990, 11-27.
 - 10) 이인수, 결혼만족도척도의 타당화 연구 -Roach, Frazier, Bowden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 경희대 석사, 서울, 1986.
 - 11) 이정연,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서울, 1982.
 - 12) 이정연,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진주 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호, 1983, 131-139.
 - 13) 이효재, 서울시 가족의 사회적 고찰,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1집, 1959, 9-12.
 - 14) 임정빈, 정혜정,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4권, 1986, 71-93.
 - 15) 양명숙,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가족학 논집, 제 3집, 1991, 31-53.
 - 16) 최신덕, 도시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제 2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2, 1973, 87-120.
 - 17) 최재석,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아세아연구원, 14 권 1호, 1971, 15-40.
 - 18) Bartoszyk, J., "Vorbereitung auf die Elternschaft und die ersten drei Lebensmonate des Kindes," Unveröff. Dissertation, Düsseldorf: Universität Düsseldorf, 1985.
 - 19) Bartoszyk, J. & Nickel, H., "Geburtvorbereitung Geburterlebnis und Eltern-Kind-Kontakt während des Klinikaufenthaltes: Eine empirische Analys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Rolle des Vater," Geburtshilfe und Frauenheilkunde, 46, 1986a, 353-359.
 - 20) Bartoszyk, J. & Nickel, H., "Die Teilnahme von Vätern an Säuglingspflegekursen des Kindes," Praxis der Kinderpsychologie und Kinderpsychiatrie, 5, 1986b, 353-358.
 - 21) Benedict, R., Kontinuität und Diskontinuität im Sozialisationsproze, In M. Kohli(Hrsg.), Soziologie des Lebenslaufs(195-205), Darmstadt/Neuwied : Luchterhand, 1938/1978, (Original in Psychiatry 1, 1938, 161-167).
 - 22) Brogan, D. & Kutner, N.,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6, 31-39.
 - 23) Fishbein, M. &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behavior,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5.
 - 24) Gennep, A. von, The rites of passage, London: Routledge & Kegan, 1960.
 - 25) Gloger-Tippelt, G., "Der Übergang zur Elternschaft eine entwicklungs-psychologische Analyse," Zeitschrift für Entwicklungspsychologie und Pädagogische Psychologie, 17, 1985, 53-92.
 - 26) Gloger-Tippelt, G., Schwangerschaft und erste Geburt, Stuttgart: Kohlhammer, 1988.
 - 27) Grant, H.; Nickel, H.; Vetter, J. & Yang, M. S., Rollenauffassungen, Einstellung zu Kindern und eheliche Zufriedenheit beim Übergang zur Erst und Zweit elternschaft in Deutschland und Süd-Korea ein interkultureller Vergleich, In H. Nickel(Hrsg.), Psychologie der Entwicklung und Erziehung, Pfaffenweiler: Centaurus-Verlagsgesellschaft, 1993, 289-298.
 - 28) Hill, R.,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9.
 - 29) Höpflinger, F., Wandel der Familienbildung in Westeuropa, Frankfurt: Campus Verlag, 1987.
 - 30) LeMasters, E. E.,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1957, 352-355.
 - 31) Michaels, G. Y. & Goldberg, W. A. (Ed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urren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32) Nickel, H., Die Bedeutung des Vaters für die Betreuung und Entwicklung von Säuglingen: Eine

- empirische Untersuchung über den Einfluß von Vorbereitungskursen für werdende Väter, In P. G. Fedor-Freybergh(Hrsg.), Pränatale und Perinatale Psychologie und Medizin, Berlin: Rotation, 1987a, 45-60.
- 33) Nickel, H., Die Rolle des Vaters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und Geburt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postnatale Entwicklung des Kindes, In G. Schusser & W. Hatzmann(Hrsg.), Das Leben vor und während der Geburt, Osnabrück: Selbstverlag der Universität, 1987b, 251-271.
- 34) Nickel, H., "Familien-Entwicklungspsychologie als Prototyp einer etappen orientierten ökologischen und systemischen Forschung", In H. Pätzolt, & K. Funke(Hrsg.), Zur psychischen Entwicklung der Persönlichkeit im Kinders und Jugendalter, Oberlungwitz: VEB Kongreß und Werbdruck, 1988a, 30-47.
- 35) Nickel, H., The role of the father in caregiv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fant: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prenatal courses on expectant fathers, In P. G. FedorFreybergh, & M. L. Vogel(Eds.), Prenatal and perinatal psychology and medicine, Aelvsjoe: Saphir, 1988b, 101-121.
- 36) Nickel, H., Bartoszyk, J. & Wenzel, H., "Vater-Kind-Interaktion im dritten und neunten Lebensmonat. Eine Untersuchung unter quasi experimentellen Bedingungen an vorbereiteten und nicht vorbereiteten Vätern,"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35, 1987, 90-96.
- 37) Olbrich, E., Erwachsenenalter und Alter, In R. Oerter, & L. Montada(Hrsg.), Entwicklungspsychologie, München: Urban & Schwarzenberg, 1982, 314-374.
- 38) Parsons, T. & Bales, R. F., Family, Socio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co: Free Press, 1955.
- 39) Petzold, M., Kentges, C. & Erdmann, C., "Paare werden Eltern Erste Ergebnisse einer Längsschnittstudie." System Familie, 3, 1990, 115-117.
- 40) Rossi, A. S.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1968, 26-33.
- 41) Schneewind, K. A., "Konsequenzen der Elternschaft,"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30, 1983, 161-162.
- 42) Steinert, H., Symbolische Interaktion, Stuttgart: Klett, 1973.
- 43) Wenzel, H., "Der Vater als Bezugsperson im Säuglingsalter", Unveröff. Dissertation, Universität Düsseldorf, Düsseldorf, 1987.
- 44) Yang, M. S., "Die Bedeutung von Rollenauffassungen bei koreanischen Eltern, Ihre Stabilität beim Übergang zur Elternschaft und Ihr Beitrag zur Generativität", Unveröff. Dissertation, Heinrich-Heine Universität Düsseldorf, Düsseldorf, 1990.